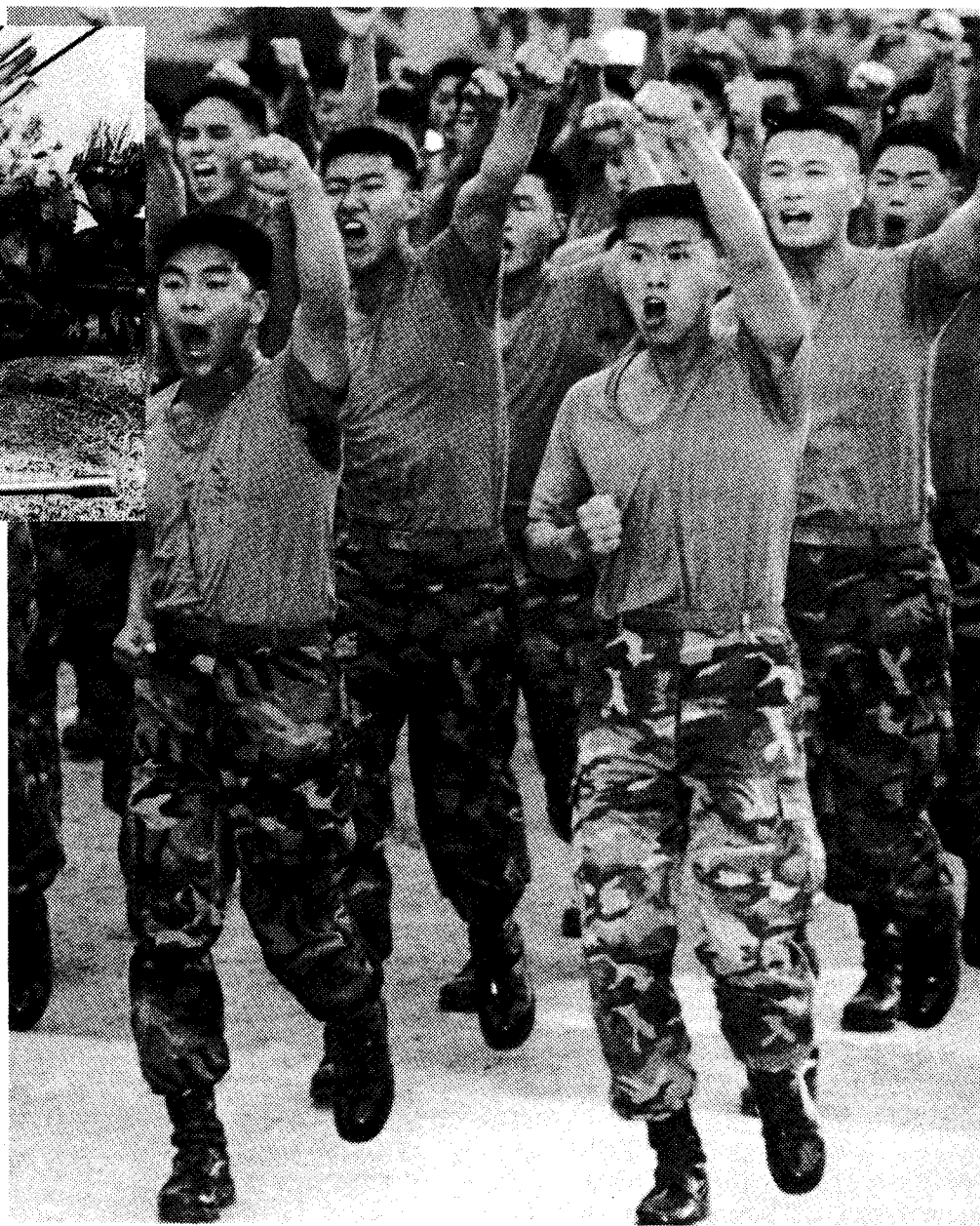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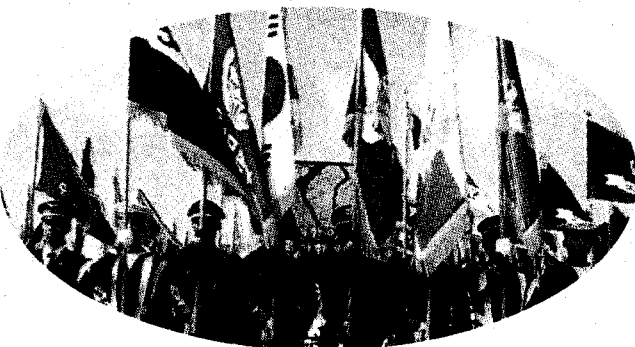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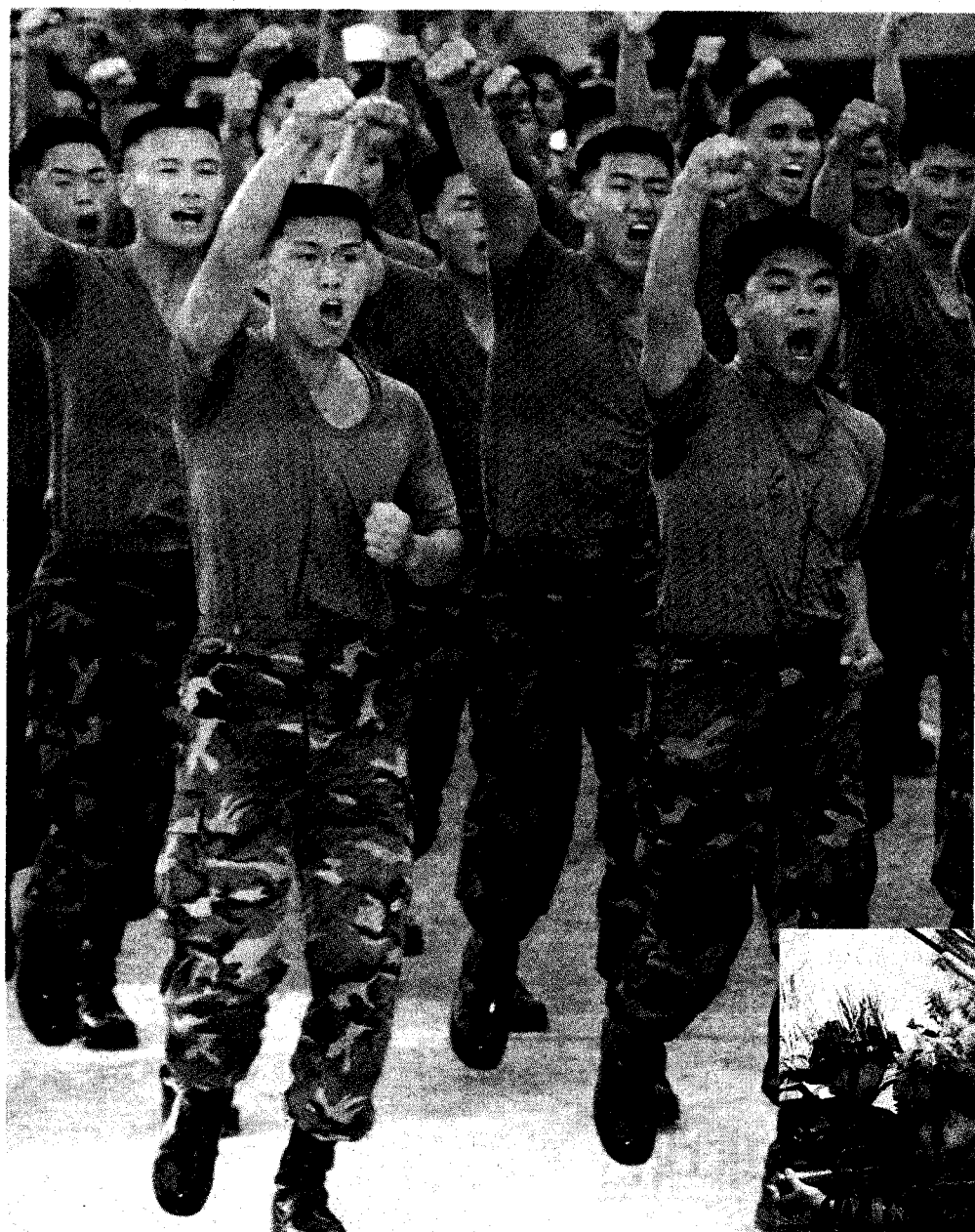




싸나이 가는길? 고생문이 열린길?

머리가 들쭉들쭉 짜여 내려간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짧은 머리는 처음이다. 이제 실감이 든다. 입영영장을 받고도 잘 몰랐는데 머리를 자르니 이제 확실히 군대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색하게 남아 있는 짧은 머리를 모자로 가리고 친구들이 모여있는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모두가 술을 건내며 내게 '몸조심 해라'라는 말을 꺼낸다. 그네들도 내게 딱히 해 줄 말이 없는 듯 하다. 내가 계획하고 전념하던 모든 것에 대해 이제 잠시나마 이별을 고평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거의 모두가 한 번쯤 머리를 짧게 깎으며 허탈감을 느껴야 하는 때가 있다. 사회통념상 군대라는 것은 '고생하는 곳'이라 인식되어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군대를 가면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군대에 대해 주위 어른들은 '남자라면 군대가서 한 번 고생쯤 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가까운 선배들은 '안 갈 수 있으면 안가는게 좋고 가야 한다면 되도록 빨리가야 한다'라고 충고한다. 가면 고생하는 곳, 그리 달갑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는 '군대'라는 것은 분명 가는 당사자나 보내는 주위사람들에게나 모두 골칫거리일 것이다.

군대라는 곳은 과연 이처럼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2년이 넘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곳일까? 아님 또다른 집단에 속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곳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학교 많은 학우들은 부정적인 답을 한다. (옆 기사 설문조사 참조) 과반수를 넘는 학생들은 '군생활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 그 이유로는 주로 학업중단과 시간낭비를 들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병역의무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는 것은 비단 우리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 많은 나라에서도 그러하다. 처음 병역의 의무가 나타난 것은 근대 이후 시민권의 확대와 함께 시민권으로서의 조세와 병역의 의무가 부가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시민의 의무로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조론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이 종식되면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서구국가 중심으로 징병제의 폐지와 복무기간의 단축 등 지원병 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복무는 대인관계 넓히고

인내심 키워주는 순기능이 있다.

절대복종 강요로 조직생활에 매몰될 수 있어

가치로 6·25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전쟁의 가능성이 저하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병역의무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는 듯 하다.

이러한 시류속에 고생만 한다는 2년간의 군생활이 과연 개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건설적인 기간인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군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엔 무엇이 있을까? 한 연구기관에선 군복무를 마친 우리나라 남성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복무가 의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사회조사를 실시했는데 군생활을 한 사람들 중 74% 정도가 책임감이 더 뛰어나며 인내심에 있어선 77%가 더 월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방저널 9월호) 이러한 조사통계가 대변하듯이 군복무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군대는 인스턴트식 사회구조와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사회문화에 젖은 육체적 나약이나 정신적 나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극기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즉, 군대생활 자체보다 군복무 본래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면서 그 과정에서 습득되는 파생적인 가치가 큰 것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군생활은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며 다른 것을 얻기위한 시간투자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역기능도 있다.

소위 군대를 조직집단이라 일컫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직이란, 정확히 말해서 공공조직이라 함은 주어진 권한이나 리더십 하에서 정부의 업무

를 집행하기 위해 협동하는 인간집단의 조정된 활동체로 정의된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조직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되어버린 이러한 조직은 그 관료주의와 의사소통의 솔직성, 개방성 등의 결여로 많은 자구책이 다시금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과는 다르게 군대조직은 그 특성상 철저한 명령하달방식으로 운영되고 개인의 능력보다 경험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상관에게 절대복종'이라는 규율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문제가 지적된다. 한 사회심리학자가 '순종의 한 형태로서의 복종'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직 합당한 권위만이 복종을 높일 수 있을 뿐 누구든지 권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다. 군대에서는 단지 상관이란 이유로 복종을 해야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복종에 대한 반발심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반발심은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해야 하는 곳이 또한 군대이다. 이렇게 절대적 복종이 필요한 곳에서 길들여 진다면 20대 초반, 가장 비판의식이 왕성한 시기에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그 학자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상급자가 합당한 권위가 있으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 명령을 내린다면 복종할 것인가?'란 질문을 던졌는데 단 한 사람의 제자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명령복종이란 상황을 잘 아는 월남전 참전용사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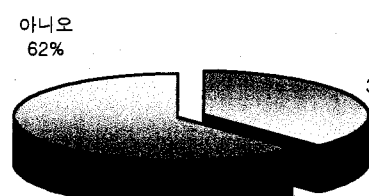
군대생활에는 이같이 분명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남자로서 군대에서 고생해보아야 한다는 말도 맞을 것이고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말도 옳을 것이다.

이제 입영통지서를 받고 머리를 깎으며 '좋은 인생 지나갔다'라는 극단적인 결론은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또한 무턱대고 '싸나이 군대'만 가자 화끈하게 지내보자'라는 발상도 일단은 접어보자.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 군대라는 새로운 사회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회에 자신의 어떠한 모습들을 남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군대를 정의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만이 이제는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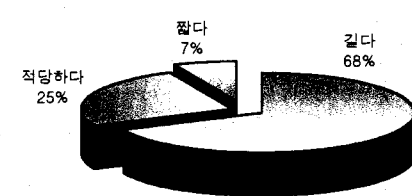
(김동욱 기자)

■ 설문조사- 군복무, 어떻게 생각하나?

군대생활 인생에 도움 안될 듯 63%



1. 군대생활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나?



2. 현재의 군복무 기간이 어떠하다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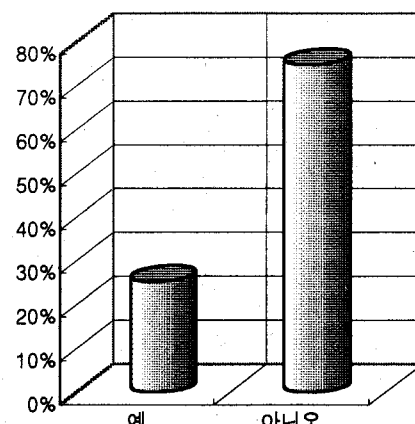
조사기간: 9월 3일~4일
조사대상: 서울·수원캠퍼스 각 2백명

이번 설문지는 '군대에 대한 의식조사'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군대와 생활에서 병역문제와 관련된 몇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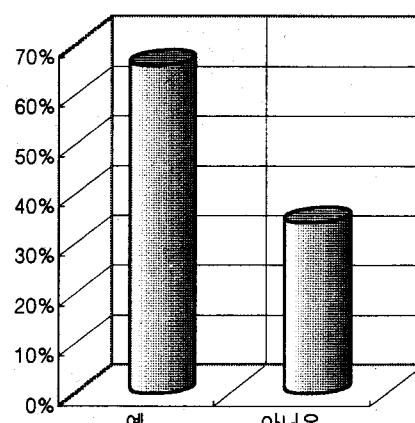
우선 남학생의 경우 가장 적절한 입대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70%가 '2학년 중, 후반이 적절하다'라 답을 했으며 1학년 중, 후반은 18%에 달했다. '군대생활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3%정도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 이유로, '학업중단'이 25.5%, '시간낭비'가 24.5%에 이르렀다.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한 이유는 '인내력 향상'이 30%, '대인관계에 도움'이 20%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군복무기간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는 '길다'라고 답한 이들이 68%에 달해 현 복무기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저야하는가'란 질문엔 반대한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고 '애인이 군대간다면 기다리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 대답한 여학생이 66%를 차지해 아직까지 순애보적인 사랑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



3.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 애인이 군대에 간다면 기다리겠는가?